

성 사 법 설

1. 다음 풀이가 맞으면 ○, 틀리면 × 를 하시오.

- 1) 무체법경(無體法經)은 성사님께서 포덕 51 년 내원암에서 49 일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으셨으며, 포덕 53 년 3 월 16 일에 발행하였다.()
- 2) 마음이 작용하기 전 원리원소의 상태를 성품이라고 한다. ()
- 3) 성품이 열리면 모든 이치와 모든 일의 좋은 거울이 되나니 그 이치와 일이 거울 속에 들어 능히 운용하는 것을 몸이라고 한다. ()
- 4) 신(神)은 기운이 이루어 놓은 것이지만 마음은 기운이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다. ()
- 5) 마음은 곧 신(神)이요, 신(神)은 곧 기운이 이루는 바 이니라. ()
- 6) 내 몸에 있는 원소가 나와진 역역 만 년 전부터 있어온 것을 성천(性天)이라고 한다. ()
- 7) 성천의 원리원소는 역역 만 년 전 천지가 나누어지기 이전부터 있었으므로 앞으로 역역 만 년 후 천지가 없어진다고 해도 그대로 있는 것이다. ()
- 8) 성품과 마음은 그 작용이 다르므로 같이 닦을 수가 없는 것이다. ()
- 9) 도, 즉 이치를 아는 사람은 성품과 마음을 같이 닦아 나아갈 수 있다. ()
- 10) 내 몸에 모신 한울님을 믿되 습관 된 마음과 본래의 마음을 분별해서 주(主) 객(客)의 위치를 정하여 신앙을 해야 한다. ()
- 11) 사람이 한울의 권능을 이겨서 한울이 사람의 명령을 따르도록 해야 된다. ()
- 12) 성품을 보고(見性) 기운을 본다(見氣)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보면 된다. ()
- 13) 원소는 성리(性理)가 작용을 시작하기 전 상태이므로 아무 작용이 없으니 오직 비고 고요할 뿐이다. ()
- 14) 원소가 작용하여 우주 안에 꼭 차 있는 것을 심기(心氣)라고 한다. ()
- 15) 심기(心氣)는 성리(性理)에서 나오는 것이니 나무로 깎은 인형(木人)은 성리가 없으므로 심기도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. ()
- 16) 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지만 사람은 심기가 없어도 산다. ()
- 17) 성품과 몸 둘 사이에서 만리만사를 소개하는 요긴한 중추가 마음이다. ()
- 18) 마음은 내 몸에 통해 있는 유정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. ()
- 19) 마음이 유정천에서 나와진 것이므로 마음을 닦아 마음의 힘을 얻으면 유정천과 같은 능력을 쓸 수 있다. ()

- 20) 신통력은 성품과 마음을 같이 닦아 나아가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. ()
- 21) 대신사께서는 견성각심을 하시어 삼계천의 가장 윗 한울에 계셨으므로 후천 천황씨가 되신 것이다. ()
- 22) 삼계천은 무형천 유정천 습관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. ()
- 23) 사람이 성품 깨닫는 것은 자기 마음과 자기 정성에 있지 않고 한울님과 스승님의 권능에 있다. ()
- 24) 만약 세 가지(性心身)에 하나가 능하면 천황씨요 세 가지에 하나라도 능치 못하면 범인이니라. ()
- 25) 범인(凡人)은 수도를 잘해서 성심신(性心身)을 다 깨닫는다 하더라도 성인(聖人)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. ()
- 26) 마음이 성품 깨닫는 데 들어가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에 풍운조화가 일어나게 된다. ()
- 27) 마음은 본래 비어서 자취도 없고 형체도 없으므로 선(善)도 없고 악(惡)도 없으며 시작도 없고 마치는 것도 없는 것이다. ()
- 28) 마음은 형체도 없고 자취도 없지만 생각하고 헤아리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나와지는 것이다. ()
- 29) 마음으로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보여 진다. ()
- 30) 성 심 신 세 가지를 함께 구해야 정시정문이 된다. ()
- 31) 사랑은 예수께서 말한 것이므로 성심신삼단으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을 해도 대도를 얻지 못한다. ()
- 32) 내 마음을 멀리 보내도 갈 곳이 없고 저 한울이 내게 와도 들어 올 곳이 없느니라. 반드시 마음 밖에서 구할 것이니라. ()
- 33) 성리는 비고 고요하지만 크게 활동할 동기가 비장되어 있다. ()
- 34) 마음은 작게 활동하는 기관이므로 비록 단련을 하더라도 큰 능력이 나올 수 없다. ()
- 35) 견성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닦아 천심을 회복하여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. ()
- 36) 성품은 무형이라 볼 수가 없으므로 자성(自性)을 만들어 걸어 놓아야 견성을 할 수 있다. ()
- 37) 한울과 내 마음은 본래 하나라 내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견성을 할 수 없다. ()
- 38) 내 성품이 내게 있으니 성품을 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것이니라. ()
- 39) 마음 밖에 이치가 있고 마음밖에 물건이 있고 마음밖에 조화가 있느니라. ()

- 40) 견성을 하려면 먼저 성품, 이치, 마음, 몸 등을 깨달아야 한다. ()
- 41) 마음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것이므로 성품을 보거나 조화를 쓰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. ()

2. 다음 물음에 가장 적합한 답을 골라 ()안에 번호를 쓰시오.

- 1) 만리만사의 원소는 무엇인가? ()
- 가) 마음이다.
 - 나) 성품이다.
 - 다) 기운이다.
 - 라) 내유신령이다.
- 2) 마음을 운용하는 맨 처음의 기점은 어디인가? ()
- 가) 내 성품
 - 나) 성천(性天)
 - 다) 나, 내 몸
 - 라) 내 정신
- 3) 본래의 나는? ()
- 가) 120년 간 살 수 있다.
 - 나) 생.사를 면할 수 없다.
 - 다)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.
 - 라) 천지미판전 억억만년 전부터 있었고, 무선무악, 무루무증, 불생불멸하는 것이다.
- 4) 성심쌍수(性心雙修)에 대하여 적합한 설명을 고르시오. ()
- 가) 성품과 마음을 분별해서 성심쌍수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수련을 해야 도를 깨닫는다.
 - 나) 성심쌍수를 몰라도 수련을 열심히 해서 강령만 모시면 된다.
 - 다) 성심쌍수를 몰라도 주문만 열심히 외우면 된다.
 - 라) 마음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심쌍수는 자연히 된다.
- 5) 천도교의 올바른 신앙방법은 어느 것인가? ()
- 가) 한울님이 마음 밖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
 - 나) 사람이 곧 한울이니 내가 나를 우러르고 믿는 것

- 다) 마음이 곧 한울이니 내가 내 마음을 믿는 것
- 라) 한울님과 나 사이에 주와 객을 분별하여 내 마음으로 내 몸에 모셔져 있는 한울님을 믿는 것

6) 사람의 권능이 한울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? ()

- 가) 내 몸이 한울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.
- 나) 내 마음이 한울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.
- 다) 마음이 몸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.
- 라) 한울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습관 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.

7) 권능의 균형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? ()

- 가) 균형 잡힌 저울과 같이 권능이 똑 같다는 말
- 나) 균형을 잡으려면 권능이 있어야 한다는 말
- 다) 처음부터 권능이 정해졌다는 말
- 라) 균형 잡힌 저울에 물건을 더 놓는 쪽이 무거워지는 것과 같이 한울과 사람 사이에도 주체로 삼는 쪽의 권능이 더 커진다는 말

8) 성(性)을 주체로 하고 닦는 사람들은 무엇을 도라고 하는가? ()

- 가) 성품의 권능으로서 비고 고요한 경지를 무궁히 하고 그 원소를 확충하여 불생불멸을 도라고 한다.
- 나) 부귀영화를 누리고 몸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도라고 한다.
- 다) 한 몸이 건강하고 오래도록 사는 것을 도라고 한다.
- 라) 마음을 닦는 것을 도라고 한다.

9) 몸을 주체로 닦는 사람들은 무엇을 도라고 하는가? ()

- 가) 죽은 뒤에 천당이나 극락에 가는 것을 도라고 한다.
- 나)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도라고 한다.
- 다)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것을 도라고 한다.
- 라) 몸의 권능으로서 활발하고 거리낌 없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.

10) 도를 올바르게 닦는 것은 어떻게 닦는 것인가? ()

- 가) 성품만을 주체로 닦는다.
- 나) 성품과 마음을 함께 같이 닦는다.
- 다) 마음과 몸을 함께 같이 닦는다.
- 라) 성품, 몸, 마음을 함께 같이 닦는다.

- 11) 유정천(有情天)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? ()
- 가) 내 몸 밖에 계시는 한울님
 - 나) 억억 만 년 전부터 있어온 성천(性天)
 - 다) 내 몸 안에 통해 있는 성품
 - 라) 내 몸에 모셔져 계시는, 뜻이 있는 한울님
- 12) 신통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? ()
- 가) 몸을 수련하는 데서부터 나와진다.
 - 나) 바라고 구하는 데서부터 나와진다.
 - 다) 성품과 마음을 수련하는 데서부터 나와진다.
 - 라)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데서부터 나와진다.
- 13) 사람이 성품을 깨닫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? ()
- 가) 한울님과 스승님의 권능에 있다.
 - 나) 경전공부만 해야 한다.
 - 다) 주문만 외우면 된다.
 - 라) 한울과 스승의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마음과 자기 정성에 있다.
- 14) 천황씨가 되고 성인이 되고 범인이 되는 묘법은 어디에 있다고 하셨는가? ()
- 가) 마음을 정하고 정하지 못한다 있다.
 - 나) 성심을 수련하는데 있다.
 - 다) 신통력을 나타내는데 있다.
 - 라) 견성각심을 하는데 있다.
- 15) 스스로 천황씨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? ()
- 가) 성심을 수련하라고 하셨다.
 - 나) 신통력을 쓰라고 하셨다.
 - 다) 자심을 자성 자경 자신 자법하여 조금도 어기지 말라고 하셨다.
 - 라) 마음을 정하라고 하셨다.
- 16) 어떻게 구해야 정시정문(正示正聞)이 되는가? ()
- 가) 흰 것, 붉은 것, 푸른 것 등 내 생각대로 구한다.
 - 나) 몸이 있으므로 몸을 주체로 알고 구한다.
 - 다) 스스로 보이는대로 구한다.

라) 성·심·신 세 가지로 바르게 구한다.

17) 영교(靈橋)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? ()

가) 조상이나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도와주는 것

나) 내유신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

다) 접령이 되어서 가르쳐 주거나 이루어 주는 것

라) 영은 하나이므로 내가 못사람을 사랑하면 못사람이 한울 길에 가서 영의 다리를 이룰 것이고 못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울 길에 가서 영의 다리를 이루는 것

18) 성리(性理)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? ()

가) 성리는 비고 고요하다.

나) 크게 활동할 만한 동기(動機)가 비장(秘藏)되어 있다.

다) 만상(萬相)이 전부 한 곳에 모여 활동할 본지(本地)를 삼은 것이다.

라) 작게 활동하는 기관(機關)으로 각각 자기 직분의 동작을 받은 것이다.

19) 마음을 단련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? ()

가) 천지를 운반할 수 있는 큰 능력이 나와진다.

나) 만상의 윗자리가 되는 권능이 있다.

다) 크게 활동하는 동기가 비장되어 있다.

라) 자연히 신통력이 나와진다.

20) 마음을 물건(物) 밖으로 보내면 내 몸에는 무엇이 남아 있겠는가? ()

가) 유정심천(有情心天)

나) 무정이천(無情理天)

다) 아사아량(我思我量)

라) 영묘영적(靈妙靈迹)

21) 내 생각과 나의 헤아리는 작용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하셨는가? ()

가) 내 몸에 비장되어 있는 영묘(靈妙) 영적(靈迹)

나) 유정이천(有情理天)

다) 유정심천(有情心天)

라) 진진몽몽(塵塵濛濛)한 습관천(習慣天)

22) 성리를 보는 것이나 조화를 쓰는 것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가? ()

가) 성품

- 나) 내 몸
- 다) 한울님과 스승님
- 라) 내 마음

- 23) 견성하는데 있어서 깨닫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? ()
- 가) 스승님께서 행하신 행적(敎史)
 - 나) 성천(性天)과 리천(理天)
 - 다) 심천(心天)인 마음
 - 라) 신천(身天)인 몸

3. 다음 문제의 답안을 기술하시오.

- 1) 성품과 마음을 간단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시오.
- 2) 성심쌍수(性心雙修)란 무엇입니까?
- 3) 올바른 신앙방법을 간단히 말씀하시오.
- 4) 성심신(性心身) 세 가지를 다 닦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.
- 5) 삼계천(三界天)은 무엇입니까?
- 6) 성심을 수련하는데서 신통력이 나와지는 이유를 말씀하시오.
- 7) 천황씨와 성인과 범인은 어떻게 구별됩니까?
- 8) 성인(聖人)과 범인(凡人)의 마음 쓰는 차이를 설명하시오.
- 9) 견성(見性)이란 무엇입니까?
- 10) 어떻게 해서 마음으로 구하는 대로 보여지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시오.
- 11) 자구자시(自求自示)와 정시정문(正示正聞)을 구분하여 그 뜻을 설명하시오.
- 12) 정시정문(正示正聞)은 무엇입니까?

13) 사람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대도(大道)를 얻는다고 하였는데 왜 그런지 설명하십시오.

1. 다음 풀이가 맞으면 ○, 틀리면 × 를 하시오.

- 1) ○ 2) ○ 3) × 4) × 5) ○ 『천도교경전』 「성심변」 437 쪽
- 6) ○ 7) ○ 8) × 9) ○ 『천도교경전』 「성심변」 438 쪽
- 10) ○ 『천도교경전』 「성심신 삼단」 439 쪽
- 11) × 12) × 『천도교경전』 「성심신 삼단」 440 쪽
- 13) ○ 14) ○ 15) ○ 16) × 『천도교경전』 「성심신 삼단」 441 쪽
- 17) ○ 18) × 19) ○ 『천도교경전』 「성심신 삼단」 444 쪽
- 20) ○ 『천도교경전』 「성심신 삼단」 445 쪽
- 21) ○ 22) × 23) × 『천도교경전』 「신통고」 446 쪽, 447 쪽
- 24) × 25) × 26) × 『천도교경전』 「신통고」 448 쪽
- 27) × 28) ○ 29) ○ 『천도교경전』 「신통고」 451 쪽, 452 쪽
- 30) ○ 『천도교경전』 「신통고」 453 쪽
- 31) × 32) × 『천도교경전』 「신통고」 454 쪽
- 33) ○ 34) × 『천도교경전』 「신통고」 455 쪽
- 35) ○ 36) × 37) ○ 『천도교경전』 「견성해」 457 쪽
- 38) ○ 『천도교경전』 「견성해」 458 쪽
- 39) × 40) ○ 41) ○ 『천도교경전』 「견성해」 460 쪽

2. 다음 물음에 가장 적합한 답을 골라 ()안에 번호를 쓰시오.

- 1) 나 2) 나 『천도교경전』 「성심변」 437 쪽
- 3) 라 4) 가 『천도교경전』 「성심변」 438 쪽
- 5) 라 『천도교경전』 「성심신 삼단」 439 쪽
- 6) 라 7) 라 『천도교경전』 「성심신 삼단」 440 쪽
- 8) 가 9) 라 10) 라 『천도교경전』 「성심신 삼단」 442, 443 쪽
- 11) 라 12) 다 『천도교경전』 「성심신 삼단」 444 쪽, 445 쪽
- 13) 라 『천도교경전』 「신통고」 447 쪽
- 14) 가 15) 다 『천도교경전』 「신통고」 449 쪽
- 16) 라 17) 라 『천도교경전』 「신통고」 453 쪽, 454 쪽
- 18) 라 19) 다 『천도교경전』 「신통고」 455 쪽, 456 쪽
- 20) 나 21) 가 22) 라 『천도교경전』 「견성해」 458, 459, 460 쪽
- 23) 가

3. 다음 문제의 답안을 기술하시오.

- 1) 원리원소가 운용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닫힌 상태를 성품이라 하고, 원리원소가 작용을 시작하여 운용하는 상태를 마음이라고 한다.
- 2) 성심쌍수란 성품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을 말합니다. 먼저 무형의 원리 원소가 작용하기 전 성품자리와 작용하는 마음자리를 구분하고 정명선의한 마음으로 습관된 마음을 없애면 한울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심이 되고 무심상태에 이르러 수 있다.
- 3) 한울님을 믿되 습관 된 마음과 본래의 마음을 분별해서 한울(본래나)을 주로 삼고 한울님을 믿는다.
- 4) 사람은 성품과 마음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닦아서 깨달아야 한울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.
- 5) 공공적적인 무형천(無形天)과 원원충충한 유정천(有情天)과 진진몽몽한 습관천(習慣天)을 말합니다. 즉 성심신 삼단을 말합니다.
- 6) 내 마음은 유정천에서 나온 것이므로 본래부터 능력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에 물들고 가리워져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심을 수련하여 맑고 깨끗해지면 자연스럽게 신통력이 나오게 됩니다.
- 7) 성품과 마음과 육신(性心身)을 다 깨달으면 천황씨(天皇氏), 셋 중에 하나를 깨달으면 성인(聖人), 하나도 깨닫지 못하면 범인(凡人)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- 8)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정해져 있고 정명선의(正明善義)가 아니면 행치 아니하고 범인은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정명선의를 행치 못합니다.
- 9) 성품을 보는 것, 즉 불생불멸, 무루무증, 무선무악한 천지미관전 본래의 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.
- 10) 한울님은 불택선악 하시고 무선무악 하시므로 정시정문 하시어 구하는 대로 주신다.
- 11) 자구자시(自求自示)는 자기의 생각대로 구했으므로 자기가 구한 대로 보여 졌다는 말이니 성.심.신 세 가지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만을 구했으므로 한 가지만이 보여졌다는 뜻입니다. 정시정문(正示正聞)은 바르게 구하므로 바르게 보여지고 바르게 들려졌다는 말이니 성.심.신 세 가지를 합하여 보이고 나누어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.
- 12) 바르게 보이고 바르게 들려졌다는 말입니다. 즉 한울님은 구하기를 바르게 하면 바르게 보여주시고, 그릇되게 구하면 보이는 것도 그릇되게 보여 주신다는 말입니다.
- 13) 서로 미워하거나 미움을 받으면 영의 다리(靈橋)가 끊어져서 한울님과 통하지 못하며 서로 사랑하면 못사람이 한울 길에 가서 영의 다리를 반드시 이루기 때문입니다.